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아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2월 12일(목) 제 3266호

전북 농생명산업 대전환 5조 프로젝트 시동

헴프·AX 자이언트 스마트팜 K-푸드 수출허브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간투자 중심 5조5천억 단계 투입 그린바이오 고도화·청년농 육성 농업 혁신·농촌 활력 회복 가속

전북도가 첨단농업과 K-푸드 수출허브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2026년 농생명산업 분야 브리핑을 통해 올해를 전북 농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중심으로 첨단 농생명산업과 K-푸드 수출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전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도가 제시한 청사진의 핵심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다. 헴프 산업클러스터, AX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 K-푸드 수출허브단지 등 총 5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헴프산업클러스터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53ha에 3,875억 원을 들여 2035년까지 건설된다. 재배부터 가공·연구개발·제품화까지 아우르는 전주식 산업 생태계 조성이 목표.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올해 농식품부에서는 국비 5억 원으로 '새만금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조사' 연구용역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도 추진된다. 전북은 이미 20여 개 기업을 접촉해 투자 의향서를 확보했고, 이를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부지 조성, 인허가 지원,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X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에는 2조 6,808억 원이 투입된다.

886ha 부지에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완전 자동화 농업시설이 2035년까지 들어선다. 1단계로 2028년까지 16ha 규모의 국가농업 AX플랫폼센터와 테스트베드를 먼저 구축하고 이후 시장주도형·농업인주도형 스마트팜 단지로 확대한다.

K-푸드 수출허브단지는 새만금의 항만·공항·철도 인프라를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초기지로 개발된다.

신항만 배후단지에 콜드체인 시스템 60ha, 주변부지에 수출전문 가공단지 120ha가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조 4,200억 원이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B/C 1.16)을 확인했고,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도는 그린바이오산업 기반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전국 최다인 18만 7,000 균주의 미생물

자원을 활용해 전주·익산·정읍·남원·임실·순창 6개 시군 409만㎡가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176만㎡)와 김제·새만금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273ha)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화된다.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는 3단계 임상시험센터 구축(300억 원)을 중심으로 R&D 인프라를 확충하고 규제자유특구 연계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45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이 6.1%로 전국 최고인 전북은 2029년까지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4개소에 400억 원을 투자한다.

장수군과 순창군에서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년간 시행된다. 연간 855억 원 규모로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북형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26년을 전북 농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분수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혁신에코르 2단지 공공임대 잔여 29세대 일반분양



전북개발공사는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전용 50㎡·59㎡ 공가 29세대를 일반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전북개발공사>

10년 임대 종료 공가 일반분양 시세 대비 저렴·기존 인프라 강점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수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발생한 잔여 세대 29세대를 일반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급 세대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공가로, 오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 세대는 ▲전용 50㎡ 24세대(분양가 1억1,615만원) ▲전용 59㎡ 5세대(분양가 1억3,610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입주 단지인 만큼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장점이며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는 조건으로 분양한다.

청약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처측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하며 당첨 시 3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bdc.co.kr>)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전북도는 11일 김관영 지사가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산불 진화헬기 계류장과 운항 정비 시설을 둘러 보며 항공 진화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자립준비청년 '세시다담' 명절 자조모임

설 맞아 보호종료청년 20여명 참여 떡국·전 만들기 등 명절 음식 체험 다도 프로그램 통한 안정·소통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떨어져 홀로 명절을 보내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1일 전주 덕진구 국제요리학과와 완산구 카페 영월화당에서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세시다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조모임은 보호종료 이후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시다담'은 세시풍속과 다도, 담소의 의미를 담아 만든

이름으로, 전통문화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희망 시 24세까지 연장)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36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고 있으며, 매년 60여 명이 새롭게 자립을 시작

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은 떡국과 전, 잡채 등 설을 대표하는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며 우리 고유의 명절 문화를 체험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협력이 이어지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가 형성됐다.

진행된 다도 체험에서는 차를 우리는 방법과 다례 예절을 배우며 여유와 배려의 의미를 되새겼다. 차를 매개로 서

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참여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자조모임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조모임, 문화·정서 체험,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설 명절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꾼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장수군농특산물
장수물 MALL

道, 새만금 5조 투입 농생명 국가전략기지 '승부수'

헵프·스마트팜·식품수출거점 구축 '규제 제도' 메가센드박스 실증 특례 완전자동화지이엔트 스마트팜 추진 민간투자80%유치농업AX전환가속

전북도가 새만금을 농생명산업의 국가전략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헵프·스마트팜·K-푸드 수출허브에 5조 5,00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한국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우선 전북이 새만금을 선택한 배경에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센드박스'가 있다.

국정과제 채택된 이 프로젝트는 규제 제로화를 통해 신산업 실증과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법·제도의 제약 없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헵프산업이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꼽

힌다. 미국·캐나다·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THC 함량 0.3% 이하 산업용 헵프를 합법화해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 산업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글로벌 헵프 시장 규모는 2030년 10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의 엄격한 규제로 산업화 자체가 막혀 있다. 전북도가 메가센드박스 1호 사업으로 헵프를 선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새만금 안에서 재배·가공·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전북은 이미 20여 개 기업을 접촉해 투자의향서를 확보했고, 이를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부지 조성, 인허가 지원,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X(Agricultural Transformation) 기반 지이엔트 스마트팜은 한국 농업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다. 886ha 부지에 2조 6,800억 원을 투입해 완전 자동화 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



새만금 조감도.

획이다.

핵심은 '제3세대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이다. 1세대가 온실 환경 제어, 2세대가 생육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면, 3세대는 AI 기반 수요예측과 자동화 수확, 유통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고, 고정 거래처와 수직계열화를 이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사업비의 80%를 민간 투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2조 1,500억 원을 유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플랫폼센터·테스트베드 등 공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연근해어업 '지속가능 특별법' 발의

어업 전 과정 관리체계 법제화 어선 위치·어획·양륙 보고 의무



윤준병 의원

이에 윤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어업실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근해어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윤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 및 고수온 현상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존의 투입량 중심 어업관리 방식만으로는 자원 회복과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는 FAO와 IMO 등을 중심으로 어선 위치관리, 전자어획보고, 수산물 추적성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EU 등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이를 사실상의 통상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획·전제·양륙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법률이 부재해, 국제 기준 대응과 투명한 수산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어확량(TAC) 제도를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출량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정상 작동 의무화, 조업일별 어획·전제 실적 보고 제도화, 지정된 장소에서의 양륙 및 양륙 실적 의무 보고 등을 통해 어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어획확인서와 어획증명서의 발급·전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수산물 유통 전 단계에서 합법성과 추적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확한 어업실적 데이터 확보 없이는 수산자원 보호도, TAC 확대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번 특별법은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현장 중심 제도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실한 어업인이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조국혁신당, 민주당 연대·통합 추진위 구성 합의

地選 전 통합 무산 뒤 연대 선회 호남 경쟁, 비호남 단일화 가능성 조국 '신뢰·존중 바탕 책임 협의'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전 통합이 어려워지자, 혁신당에 지방선거 전 통합 무산에 대해서 사과를 한 뒤에 지방선거 연대 및 선거 후 통합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진받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조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

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하고, 선거 후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적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지선 전 해당 무산에 대해서 민주당 정 대표의 사과를 수용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

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하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비가 오고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같은 지방선거 연대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넘치는 호남에서는 양당이 경쟁을 하고, 호남 외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 등의 방법으로 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영목기자

민주당, 혁신당과 오는 8월 통합전대 치를 듯

강득구 SNS서 '대통령 뜻' 언급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글 삭제 '오해 유감'의원실 내부 실수

친명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8월)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하면 하는 것이 (이재명)대통령의 바람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이라면서도 이같이 지방선거 후

통합 입장을 공개했다. 물론 이같은 청와대 입장 공개에 대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이 발생하자, 강 의원은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면서 올린 글을 곧바로 삭제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페이스북 글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린다"며 "어제 오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온갖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밤새 고통스러웠다"면서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어렵게 함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친 점 정중회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강 최고위원의 대통령의 입장 공개에 따라 혁신당과의 지방선거전 통합이 무산된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과 통합 전대를 통해 함당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전 통합을 추진했으나 당내외의 반발 등으로 지방선거 후 통합논의하고 결정했었다.

/서울=김영목기자



강득구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익표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입장은 찬성"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전북자치도, 신중년 유연근무 일자리 92명 지원

전북도는 신중년의 경제활동 지원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도내 기업이 40~64세 신중년을 주 24~35시간 유연근무 형태로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총 92명 규모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4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필수)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채용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누리집(<https://www.1577-0365.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며 총 4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김은지 기자

<社告>

독자 제한계 알립니다.

전북타임스는 설 연휴 휴간에 들어간 뒤 2월 24일 자에 신문을 발행합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재정비 후 신속성과 정확성에 기반해 제작된 소식을 들고 다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병오년 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북타임스 임직원 일동 세배

설 연휴 교통사고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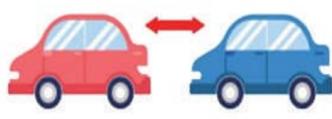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차량 간

안전거리 준수



장 시간 운전 시

적절한 휴식



음주 운전

절대 금지



전주 객사천·은석천 정비종합계획 심의 준비 본격화

시, 11일 전북자치도와 합동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주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11일 전주시 객사천 일원에서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과 함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안)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 및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현장 행정에는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하천 관리 실태와 주변 여건을 점검하고, 소하천정비 기본 방침에

다른 재해 예방 및 환경개선 중심의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주시 객사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안) △비아천 외 3개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계획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전주시 객사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안)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

전부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 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해당 계획이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비아천 외 3개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안)은 신규 계획으로, 향후 재해 예방과 하천 기능 회복, 주변 환경개선을 목표로 수립됐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이번 현장 행정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현장 행정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여건을 직접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단순한 계획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해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며 "객사천과 은석천을 포함한 전주시 주요 소하천의 정비 계획이 현장 조건과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철 기자

전주시 노인일자리참여자들 기부 실천

고령취약노인들 위한 나눔 실천을 추가로 기부하기도 했다. 기부된 포인트로 구매할 라면 33박스와 백미 10포는 전주시 노인일자리마련센터(6개소)를 이용하는 고령·취약 노인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니어클럽은 '전주시니어클럽' 사업에 참여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100명이 전동킥보드 정리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14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 참여자는 근무시간 외에도 자발적으로 정리 활동에 참여해 모은 개인 포인트 40만원 /정소민 기자

전주시 기후·에너지 최고등급 도시 '우뚱'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보고 결과 '최고등급' 획득

전주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을 가장 잘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기후 행동 협의체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지콰)' 이

행을 위한 2025년도 CDP(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ICLEI 트랙 보고 결과 최고등급 도시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2026년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지콰 한국사무국) 정기회의'에서 진행됐다. 지콰(GCoM)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 세계 144개국 1만3800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 최

대 지방정부 연합으로,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부문 등 2개 부문 6개 분야 항목의 이행평가 기준을 모두 준수해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최고등급 선정을 통해 시는 △수송부문 친환경 자동차(수소·전기차 등) 보급 확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후재난(폭염·한파·가뭄·홍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이행해 온 성과를 인정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 가입해 매년 GCoM 보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후 목표 및 정책의 이행사항을 공유하고 GCoM의 배지(Badge)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24년에는 우수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전주시니어클럽은 '시니어 텃밭관리사 사업단'을 확대 운영한다

"텃밭 가꾸고 노인일자리도 키운다!"

시, 시니어텃밭관리사 교육 시작 역할에 맞춘 전문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높여준다. 사업단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 텃밭 관리와 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26개소), 작물 생육 점검과 관수·제초 등 기본 관리부터 학생 참여형 체험활동 보조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복지기관 내 조성된 도시 텃밭 및 실내정원 관리(8개소)를 통해 야외 텃밭뿐 아니라 실내 녹색공간의 환경 관리, 생육 상태 점검, 경관 유지 등 상시 관리를 도울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운영된 '도시농업 컨설턴트' 사업단에는 30명이 참여해 도시농업 활동공간 10개 구역(9060㎡)의 조성 및 관리 지원을 수행했으며, '힐링파가이드' 사업단에는 50명이 참여해 21개교 학교텃밭 기반 조성(노지텃밭 5157㎡, 상자텃밭 363개)과 20개교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278회, 6393명)을 지원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민 치안 안전수준 84.6% "안정"

도민 5275명 대상 치안안전 설문조사 전북도 치안 신뢰 '최상'

전북경찰청 김철문 청장은 도민 안전 및 치안 정책 수요 파악 위한 '전북경찰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는 '전반적인 안전', '범죄예방', '수사',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5개 분야 의견을 토대로 조사가 임했다. 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총 5275명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로 도민 10명 중 8명은 전북지역 지역 치안 상태는 안전수준으로 평가했다. 관련한 세부사항으로는 전체 5개 분야 조사에서 △'전반적인 안전도' 84.6%(5점 만점 기준 평균 4.16점)가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범죄예방' 78.5%(4.09점) △'수사' 77.6%(4.07점) △'사회적 약자 보호'



73.8%(3.97점) △'교통안전' 72.9%(3.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 치안 상태는 면밀히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전북도민 치안 안전 정책으로 먼저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주거 밀집 지역과 공원·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CCTV 등 방범 시설 보강과 순찰 강화 방안이 효과적

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비(PM)와 이륜차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단속과 제도 통한 교통 질서 확립 주문이 많았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가해자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안전 조치 확대 등이 요청됐다. 전북경찰청 김철문 청장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치안 정책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경찰청은 매해 1월과 10월 사이 치안관련 전북도 15개(1개 경찰서 250명 대상) 경찰서 총 주민 3750명 대상으로 전북도민 체감안전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도 치안관련 전북도민 체감안전도는 83.3점 평가로 이어지며 치안체감 안전에서도 전북경찰청은 단연 최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사람과 자연 공존 쾌적한 도심 환경" 주력

자원순환·녹지 분야 4대 전략 제시

전주시 2026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이끈다. 11일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크린 전주! 그린 전주!' 비전으로 자원순환·녹지분야 4대 전략과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4대 전략은 △자원순환 20 체계 구축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초록정원도시 구현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공간 조성이다. 먼저 시는 올해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체계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자원순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한다. 폐기물처리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폐기물처리과정과 자원순환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견학을 교육청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해 운영하고, 재활용센터 '다시봄'에서는 재활용보다 상위 개념인 '재활용(업사이클)'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매월 10일 집중 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통해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여기에 시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신규 건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기로 했다. 신규 소각시설 건립이 완료되면 노후화된 기존 소각장과 비교해 일일 소

각 처리량이 200톤 이상 늘어나게 된다. 시는 시행 2년차를 맞은 권역 수거 체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폐기물 집하장을 확대 이전하고, 전담수거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수거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폐기물처리 수거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던 기존 노출형 분리수거대에서 지붕형 거점배출시설 '크린하우스'로 교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과 함께 전주를 대한민국 으뜸 초록정원도시로 만들기 로 했다. 시는 총 200억원 규모로 5년간 진행되는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설' 특별경계근무 돌입

"설 연휴 안전 최우선으로!" △전 직원 비상응소태세 유지 등이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귀성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차 통행관란 지역을 사전 점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설 대비 안전관리대책 점검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 총력

전주시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 도로·교통,

화재·산불, 의료·방역, 종합상황실 등 안전관리 분야별 관계부서장이 참석해 분야별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한 연휴 기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도로·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 취약 시설 특별점검 △귀성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상황실 운영 및 상습 정체 구간 안전관리 △화재·산불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응급환자 비상진료 및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 등 분야별 주요 재난안전 대책이 보고됐다. 아울러 시는 연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설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직무분석 전담반 운영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직무분석 TF 뒷받침

전북도교육청은 교육환경 정책 변화 대응과 교육행정 업무 향상 위한 직무

분석 전담반(TF)을 운영한다. 직무분석 TF는 본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직무 현황 점검 및 검토 △유사·중복 업무 분석 △학교현장 지원 강화 방안 등 현장직무 분석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기관 간 역할 분담 구조의 적정성, 학교 지원 기능의 실효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직무분석 TF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와 유연한 조직운영 및 인력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방침이다.

반면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행정 역할 변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타 시도 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전북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직무분석 TF에 힘을 보태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37명' 공개채용

오는 23~26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26 교육공무직원 7개 직종, 237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직종별로 교무실무사 15명, 조리실무사 162명, 특수교육 지도사 30명, 늘봄실무사 21명, 교육복지조사 1명, 교육복지사 7명, 위(Wee)센터 임상심리사 1명 이다.

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서접수 단계에서 응시자격, 기점 등의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응시자는 접수기간 전에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직종별 응시 자격요건 및 세부 일정, 원서접수 매뉴얼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채용공고문을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3~26일까지

/정소민 기자

펜싱 미래 주역들, 익산시 '금빛 담금질' 스퍼트

오는 14일 국가대표 후보 선수 전지훈련 마무리

익산시가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들의 뜨거운 훈련 열기로 뜨겁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진행된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이 오는 14일,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훈련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펜싱협회가 주관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김창곤 전임감독을 비롯한 지도자 7명과 남녀 종목별 우수 선수 48명 등 총 55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계룡시청과 대전시청 등 전국 각지의 펜싱팀이 대거 합류해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들은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기술 교류로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훈련 지원도 눈에 띈다.

훈련 기간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가 현장에서 선수들의 체력과 동작을 정밀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문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혹한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의 열정이 국내외 무대에서 값진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



로도 익산이 전지훈련 최적지이자 펜싱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조정 청소년 대표팀, 군산서 동계합숙훈련

전북도가 전지훈련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정 청소년 대표팀 또한 전북에 머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1일 도 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2026 조정 청소년 대표팀 40여명이 지난 1일부터 군산대학교 및 금강하구독조경기장에서 동계강화 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도내 조정팀들과 합동훈련 및 체력훈련 등을 하며 경기력 향상을 높이고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도내에서

합숙훈련을 펼치게 된다.

조정팀 뿐만 아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달에도 레슬링과 씨름, 펜싱, 태권도, 양궁 등 9종목 약 2400명의 타 지역 선수들이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무주, 완주, 임실 등 도내 곳곳에서 전지훈련을 펼치고 있다.

전북 조정협회 관계자는 "전지훈련을 비롯해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립전주박물관-전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문화발전 기여

국립전주박물관-전주시니어클럽은 '지역과 문화를 잇는 노인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약 핵심은 어르신을 박물관 전시 해설사로 양성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람객에게 깊이 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실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전주시니어클럽이 선발한 총 12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2.11일부터 3.6일까지 진행되며, 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장의 '도슨트'의 역할' 강의를 시작으로 박물관 개론, 고고학, 미술사, 전주 지역사, 박물관교

육, 전시해설 기법 등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됐다.

또 박물관 내·외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교육 전문성을 높였다. '시니어 도슨트 양성 교육' 이수 후 전

시해설사 8명과 어린이박물관 운영 지원 인력 4명이 현장에서 관람객과 만나고 소통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군산대-한중우호동행협, 외국인 창업 정착 협력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한중우호동행협회는 전북도 내 외국인 창업 정착·유입 활성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RISE-UP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 (예비)창업자 발굴 및 맞춤형 창업 교육·멘토링 공동 운영 △창업 절차, 세무, 노무 등 실무 지원 및 상담(컨설팅) 협력 △네트워킹·IR(이정)·후속지원 연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이 모아진다.

특히 국립군산대의 'RISE-UP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교육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9개국 62명이 참여했다.

교육 주요내용은 상황별 실무 교육과 현장 중심 멘토링을 중심으로 실전 역량에 초점을 맞춰졌다.



국립군산대는 앞으로도 외국인 창업자 친화형 교육·컨설팅·네트워킹을 고도화하고, 전북 지역 창업 생태계의 다

양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글로벌 창업지원 플랫폼을 RISE 사업을 통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융합교육 선도학교 담당자 연수 개최

프로그램 개발·운영 논의

전북도교육청은 11일 '2026년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업무 담당자 사전 연수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2026학년도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지정 학교는 17개교(초 6개교, 중 6개교, 고 5개교)이다.

이번 연수는 학교 교육과정 내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중심 학교'로서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또 지난해 우수한 성과 공유 현장 안착과 2026 새로운 운영 기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실생활 문

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융합교육 수업지원단을 통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현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했다.

/정소민 기자

10만명의 선택,
완주에 산다!
오늘이 좋다!

수소로 열어가는 깨끗한 일상, 풍부한 일자리로 활기찬 매일,
건강한 먹거리로 든든한 내일

완주군
WANJUGUN

익산시, 12일·20일부터 도서관별 프로그램 참여자 선착순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마음이 꽃피는 평생학습의 장을 활짝 연다.

익산시는 지역 내 7개 시립도서관에서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인 대상 '열린시민교양강좌'는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25개 강좌로 이뤄졌다.

유아·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문화프로그램'은 독후활동과 문화 체험 중심의 강좌 총 23개가 진행된다.

열린시민교양강좌 신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영동·부송·유천·금마·황등도서관은 오는 12일, 모현·마동도서관은 오는 20일부터 하면 된다.

어린이 문화프로그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열린시민교양강좌는 △오늘의 글쓰기 △어반드로잉 △사진 등 독서부터 취미, 정보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강좌로 구성됐다.

시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대상 문화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모현도서관은 초등학생 대상 '뽀짝락 아틀리에'와 3~7세 유아를 위한 오감 체험 프로그램 '울랄라 유치원'을 운영하며, 마동도서관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대상 강좌를 준비했다.

영동시립도서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 '버라이어티 베어' 시리즈 개최

정읍시립미술관이 2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민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인 '버라이어티 베어(Variety Bears)'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전시실과 3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기존의 정적인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과 사운드, 독창적인 공간 연출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경험 중심'의 전시로 기획됐다.

전시의 핵심 콘텐츠인 'BOOMING BEAR' 미디어아트 작품은 자연 풍경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곰 인형이라는 이색적인 설정을 담고 있다. 자연과 대비되는 낯선 존재의 등장은 관람객에게 강렬한 시각적 즐거움과 유쾌한 상상력을 전달하며 익숙한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전시는 기간에 따라 총 세 가지 시리즈로 순차 공개된다. △첫 번째 시리즈 '겨울, WINTER'는 2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두 번째 시리즈 '봄, SPRING'은 4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 번째 시리즈 '젤리, GUMMY'는 5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오는 20일까지 '학생승마체험' 참여 학생 모집

군산시가 말 산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단련과 정서 함양을 돕는 '학생승마체험'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2억 1,664만 원이 투입되며, 안전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승마장에서 체계적인 승마 기술을 배우고 말과 깊이 교감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호스피아' 누리집에서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보험료를 포함한 체험비 32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별도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군산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77명을 선발하며, 사업대상자가 모두 모집될 때까지 신청·접수 공고를 수시로 낼 예정이다.

/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생명 사업화 전진기지 구축

전북연구개발특구 신규 편입...연구성과, 일자리 기업 성장으로 직결

익산시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신규 편입되며, 농생명 분야의 '혁신 기술사업화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이번 지정은 지역의 우수한 연구 자산을 실제 산업과 결합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규 편입된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는 총 1,727㎢ 규모다.

원광대학교부터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 연구시설 부지 △제3일반산단 확장부지 △제4일반산단을 아우르는 익산 곳곳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지구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기반'과 '생산 기반'이 한곳에 집적됐다는 점이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농생명·식품 기술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 즉각 이전되며 시제품 제작과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익산 지구는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생성된 다양한 농생명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읍 등 인근 지역의 연구 성과물을 익산의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화하고 사업화함으로써 특구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익산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파격적인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특구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산학연 공동연구와 실증 과제 기획 등 '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는 기술 기반 기업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한다.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최초 3년간 100% 감면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우수 기업 유지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우진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익산이 대한민국 농생명 기술사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구 인센티브와 산학연 협력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은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활력 넘치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가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비상대응체계 추진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격정없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지원 △불편없는 편의제공 △빈틈없는 안전대응 등 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오는 27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자리경제 제고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은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설 명절 행사 소외되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민생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약 1억 547

만 원의 위문 성·금품이 모금됐으며 이를 가지고 관내 저소득 세대 1,30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현금 지급 △군산사랑상품권과 백미 지원 △설 명절 식품꾸러미 제공 등 다방면의 지원을 준비해 '시민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 1일 2회 일일상황보고를 실행하고 교통사고 대비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망도 유지한다.

담당 부서는 24시간 실시간 방범 CCTV 관제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며, ITS시설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주요 교차로 소문정보 동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이 아닌 자동차로 군산시를 찾는 귀성객을 위해서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설 연휴 발생할 민원을 담당할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도 16일~18일까지 문을 연다.

도로·교통·수도·하수·청소·보건·환경·식품 등 8개 분야 48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반은 사건·사고, 생활민원 처리 등을 맡아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보건지소·진료소를 비롯한 병·의원과 약국도 날째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진료 가능 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의료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시도콜센터(120) △군산시청·보건소 누리집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미수령자 최소화 오는 27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민생회복지원금 미수령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마감일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특히 이번 연장 기간에는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나 27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혜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장기 출생이나 입원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신청 기한(2월 13일)을 놓친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기존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특히,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나 연장 신청 마감일인 2월 27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단, 지급 기준일 이후 사망자나 타 시군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지

급되며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시로 환수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유희·사행성 업종이나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학수 시장은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기를 바란다"며 "지급된 지원금이 고물가로 위축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접수

여가생활 등 제공...1인당 연간 13만 원 문화혜택

군산시가 농어촌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여가생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은 도시보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들에게 건강 관리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된 복지 시책이다.

신청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1952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업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개인당 연간 13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3억 1,000여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사업대상자가 소지한 농업

생생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도내 의료기관 및 유희,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홍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생카드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문화·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받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본격 추진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정읍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읍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보내 시·군 및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당 사업과 연계해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이차보전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함께 특례보증 출연금 10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 소

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대출 규모는 125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전북자치도가 연 1%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정읍시가 추가로 연 2%를 지원해 총 최대 연 3%까지 이차 부담을 경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영 안정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운용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도와 체결한 회생 보듬자금 지원사업 협약과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 '빈틈없이'

종합상황실·기동청소반 운영

익산시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특별 관리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하며 기동청소반(청소대행업체)과 실시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생활쓰레기물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연휴 전인 오는 13일 까지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29개 읍면동에서는 공무원과 자원단체, 주민이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 지역 곳곳을 정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반 운영을 통해 쓰레기 수거와 민원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불편없이 쾌적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박차'

'국내 최고 전문기관'과 맞손

정읍시가 지난 10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한국바이오헬스케어연구원 및 (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부처 소관 전문 기관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정읍시 중점 산업에 접목해 지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두 기관은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한국바이오헬스케어연구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향후 정읍시가 추진하는 AI 기반 의료 헬스케어 및 바이오 분야의 기술 연구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함께 참여한 (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주요 부처의 허가를 모두 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이들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산·학·연 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시와 협약 기관들은 향후 실무 중심의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국가 예산 공모 사업 발굴과 유지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소 및 협회와의 협업은 정읍시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국가 예산 공모 사업 발굴과 유지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군산시가 재가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음 씬' 사업의 2026년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3월 9일 개강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원예·미술·음악·보드게임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는 이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주 2회, 회당 2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며 신

규 참여자는 4주, 지속 참여자는 8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미음 씬' 사업은 기관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재가 발달장애 성인이 일상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한다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시술 비용 일부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도모

김제시 보건소는 난임의 원인이 남성 요인인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남성 난임 대상자를 중심으로 고환조직, 정자추출술(TESE)이나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난임 치료를 위한 의학적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

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중 비뇨기와 전문의로부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남성 요인 난임 대상으로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시술 전 검사비,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 관련 비용이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병실료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며, 비뇨의학과 의료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난임 남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진행하면 된다.

홍순화 건강증진과장은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난임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나눔대화 '성료'

4대 추진방향 등 설명

고창군수가 2026년 병역년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 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지난달 13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이날 무장면까지 14개 읍·면을 돌며 '2026년 국민행복 활동 나눔대화'를 진행했다.

나눔대화는 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군정방향 보고, 읍·면 주요 사업 설명, 건의사항 수렴과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군수가 올해 군정 4대 추진방향을 직접 설명하며 관심을 끌었다.

군수 올해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

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실제 고창읍에선 "마을 앞에 스포츠터마인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하천을 건널 다리가 놓여 있지않아 민길을 돌아가야 한다"며 다리 건설을 건의했고, 신림면의 한 주민은 "마을회관이 오래돼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불안하다"고 안전진단 필요성을 호소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나눔대화를 통해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전해 받은 기쁨을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청년UP센터 '행복UP클래스' 강사 모집...오는 27일까지 접수

부안군은 청년의 자기 계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부안청년UP센터 '행복UP클래스'의 분야별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UP클래스는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디지털IT, 수공예, 조리·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일상 밀착형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강의 운영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로 강의 주제는 디지털IT·콘텐츠 분야, 공예·핸드메이드 분야, 요리·베이킹 분야 등 공고문에 제시된 예시 외에도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라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최대 12명이며 선정된 강사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부안청년UP센터에서 프로그램별 약 4~5회차의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강의 운영을 위해 회차당 강사 수당 12만원(2시간 기준)과 재료비 15만원이 지원되며 강의 공간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이며 부안청년UP센터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최종 선정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일정과 신청 방법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 063-580-4628)으로 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 지급

106개소 사회복지시설 1557명에 지급 완료

고창군이 관내 106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 1557명에게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설명절 이전에 고창사랑상품권(지역형, 카드형)으로 지급함으로써 종사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했다.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지역 복지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 수행기관 종사자 중 2026년 1월 1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전일제 및 반일제 근무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양보호



고창군이 관내 106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 1557명에게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와 생활지원사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군민 복지의 최일선에서 지역사

회를 지행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12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비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 힌트'와,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업 도약 지원사업 토크'로 구성되며, 각 사업별 3개사씩 총 6개를 선발한다.

신청된 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비, 임대료, 홍보비, 시제품 제작비 등 창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창업 비용 총 1천5백만원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된다.

'힌트' 사업은 예비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검증, 시제품 제

작,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지원해 초기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창업 도전을 돕는 사업이며, '토크' 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고도화,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사업 확장과 매출 창출을 도모하는 성장 단계 지원사업이다.

이번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김제청년공간 E : DA(이다) 홈페이지www.ied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창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김제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김제시, 농업용드론 조종면허 교육 대상자 설명회 개최

김제시는 농업 현장의 노동력 절감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64명을 대상으로 11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업용드론 활용을 위한 조종면허 취득 과정과 교육 일정, 교육기관 운영 방식,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교육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용드론 조종면허 자격취득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된 드론전문 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드론조종 자격증(1종)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교육비는 1인당 250만원이며, 시는 교육비의 50%를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등 이론교육 20시간, 드론 조종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 조종 연습 20시간, 실전 비행실습 교육 20시간으로 총 60시간 15일 정도 진행된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드론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시장서 보이스피싱·노쇼사기 예방캠페인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해리파출소(소장 김재경)는 설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 중심에 예방 활동에 나섰다.

해리파출소는 생활안전협의회 등 사회단체 회원 50여명과 함께 해리전통시장에서 시장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배포하며 주요 수법을 안내했다. 전단지 배포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예약만 해놓고 연락을 끊는 노쇼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전화나 문자로 금전이체를 요구받을 경우 흔사 판단하지 말고 주변에 먼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김재경 해리파출소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사기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만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112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설 맞이 민생안정 지원' 추진

전통시장 장보기 등 시민 체감형 소비촉진

김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 설맞이 상권활력·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절을 맞아 △김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 △공급배달업 '막개비'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민생안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시민 체감형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김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 김제사랑카드 결제 시 기존(카드 충전 시 12% 선할인)에 더해 결제시 3% 캐시백 추가 할인이 제공돼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김제전통시장과 김제중앙시장에서 진행된다.

김제시청 내 각 부서별 릴레이로 추진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부서별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까지 참여해 전통시장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내 수산물 199개 점포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공공배달업 '막개비'설맞이 북두머니 할인쿠폰 이벤트도 실시된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할인쿠폰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1월 1회, 선착순 100명(오전 50매, 오후50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설맞이 지원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부안군, 설 명절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 개방

오늘부터 1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을 아담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관내 고정식 카메라 설치지역 2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 유예 결정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할 귀성객 및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로 지도도 해

확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께서도 교통질서와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교통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맥류 생육재생기 웃거름 잡초방제 당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남)는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0.2℃ 높고 일조시간이 20시간 증가함에 따라 기상 및 보리 생육상황을 분석한 결과 맥류 생육재생기를 오는 12~14일로 판단하고 웃거름 적정 사용과 제초제 처리 등 재배관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생육재생기는 겨울철 생육이 정지됐던 맥류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새 뿌리 2~3mm(또는 2~3개)가 발생하며 일평균기온 0℃ 이상이 3~5일 지속될 때 종합 판단한다.

센터는 보리(동진·백산) 2개소, 밀(하서) 1개소 관할포를 운영하며 오는 25일까지를 웃거름 최적기로 제시했다.

웃거름은 생육재생기 후 1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생육이 양호한 포장은 10a(300평)당 요소 9~12kg을 1회 살포하고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1차(재생기 직후) 5~6kg, 2차(20일 후) 5~6kg으로 나눠 주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생육재생기 포장관리 수확량의 70% 이상을 좌우한다"며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의회, 통합 흐름에 '제동' 공식 반대

“군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반대” 자치권·재정권 약화 우려 재확인 “특례 출범...통합만이 해답 아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1일, 제 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군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행정 통합에 결사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 발표는 지난 2일 지역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 선언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된 혼란과 갈등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일관된 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군의회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직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임을 분명히 하며, 군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군의회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효율이나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권과 자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의 정당성은 반드시 주민 동의와 민주적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통합 찬성 측이 주장하는 재정 지원 확대와 전북 발전 논리에 대해, 전북도는 이미 ‘3특 체계’를 통해 충분한 재정·제도적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행정통합만이 전북 발전의 해답은 아니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완주군민의 통합 반대에 대해 “자치권과 재정권 약화에 대한 우려, 통합 효과의 불확실성,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정당한 요구”라고 설명하며, 이를 지역이거주어나 고집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끝으로 정치적 압박이나 책 임 전기가 아닌, 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확산되는 지역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 단을 촉구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완주 의 자치와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며 “전북의 발전은 군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담양군과 농업분야 교류협력 '맞손'

농업단체 인적·기술 교류 확대 치유·체험농업 프로그램 연계

순창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 소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담양군과 농업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역 농업인단체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순창군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한국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등 양 군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

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양 군은 군민의 날 및 대표 축제, 농업인 행사 상호 교류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정보 교류, 치유·체험·생태농업 프로그램 연계,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상호 기부, 경마공원 공동 유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교류와 현장 중심 협력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교류를 넘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설순용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인접 지역 간 농업인 단체가 주축이 돼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설 앞두고 복지 현장 찾아 '동행 행복'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는 △용진노인복지센터 △삼례노인복지센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성경생주간보호센터 △심정이효재가복지센터 등 관내 5개 시설을 차례로 찾았다. 군의원들은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시설 운영 현황과 예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복지는 문서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며 “군의회는 작은 불편과 건의도 놓치지 않고 정적으로 연결해, 돌봄이 신뢰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 기간에도 자리를 지키는 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완주가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며 “군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182억 투입 광역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

배수지 3곳 증설·관로 19km 신설 금과·팔덕·구림 4천세대 안정 급수

순창군이 군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역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총 182억 원을 투입해 △배수지 3개소 증설 △상수도 관로 약 19km 신설 등 대규모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순창군은 상수도 공급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로는 증가하는 물 사용량을 감

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수도시설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일부 마을에서는 수량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급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순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지구 용수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오는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광역·금과·구림 배수지의 체류시간을 기존 7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려나 관로 사고

나 비상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금과면, 팔덕면, 구림면 등 광역지구 급수지역 내 약 4,000세대에 보다 안정적으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존에 지하수나 소규모 수도 시설을 이용하던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수준과 위생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 부족 걱정 없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 미급수 지역 해소와 수도물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전북대 글로벌캠퍼스 출범식...조성 본격화

전물 리모델링 설계 착수 조성 가속 10개국 외국인 유학생 모집 완료

전북대학교는 남원시 및 정부와 추진 중인 ‘남원 글로벌캠퍼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과 국유재산 사용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사업 단계에 착수했음을 알리고자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 조성 출범식’을 개최한다.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는 남원시가 사립대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정부 국유지와 남원시 소유 토지 간 교환을 추진한 뒤 전북대학교가 해당 부지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공유재산 교환과 국유재산 사용승인은 모두 완료됐으며, 캠퍼스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전북대는 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남원글로벌캠퍼스 조감도. <사진=남원시>

모집도 완료했다.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0개국 학생들이 글로벌 캠퍼스 부지 내에서 열릴 예정이며 행사에서는 현판 설치와 함께 캠퍼스 조성의 공식화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원 캠퍼스로 이전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설 연휴 5일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 문 여는 병·의원·약국 지정

남원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와 경증 질환자에 대비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번 비상진료체계는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시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버스정류장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보건의료대책반을 지속 운영해 경증 환자 진료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휴진하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를 이용하고, 경증 질환의 경우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성료

남원시는 11일 바이오산업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관내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금·창업·기술·인력·고용·수출·관로 등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식산업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2026년 중소기업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지원사업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과 1:1 개별 상담 창구를 운영해 기업들이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현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 연계와 투자유치 및 이전·신증설 가능 기업 대상 밀착 상담을 병행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부 전주지청, 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식산업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2026년 중소기업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지원사업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과 1:1 개별 상담 창구를 운영해 기업들이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현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 연계와 투자유치 및 이전·신증설 가능 기업 대상 밀착 상담을 병행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 “안전한 명절 총력”

시설물 관리, 전기·가스 설비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확인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송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다.

11일 완주군은 삼례시장과 봉동생강골시장에서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 점검단으로 참여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노후 시설물 관리 상태 △전기·가스 설비 안전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완주군은 11일 삼례시장과 봉동생강골시장에서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완주군>

다뤄졌다. 군은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이 참여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함께 열렸다. 참가자들은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과 풍수해보호 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소방·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설 명절은 많은 인과가 물리는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한 철저한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삼례문화예술촌, 설 명절 'K-전통문화' 체험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통문화와 현대적 콘텐츠를 결합한 ‘설 명절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설 연휴 삼례문화예술촌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과 공연을 즐기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휴 기간에는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발광 다이오드(LED) 마술쇼와 전통 농악 공연이 무료로 펼쳐진다. 발광 다이오드(LED) 마술쇼는 실내 공연장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열리며, 전통 농악 공연은 야외무대에서

오후 1시에 진행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삼례탈기 찜쌀떡 만들기 △풍자화(캐리커처) 그리기 △K-전통문화 체험(호불불·배시명기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삿놀이, 투호,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을 통해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한다.

3개 전시관은 설 당일의 명절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되며 제1전시관에서는 일러스트 특별전, 제3전시관에서는 현대회화 지역작가전, 제4전시관에서는 천철석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목공예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3월부터 유아발달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관내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예술적 감각 향상을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유아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총 48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각 반은 연령별 맞춤 수업으로 구성되어 음악에 맞춘 발레 기본 동작, 리듬감 향상 활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레 바를 활용한 기초 신체훈련도 함께 이루어진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카페 ‘순창군해피니스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운영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063)650-5232로 연락하면 된다.

은기군 보건의료원은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지역 유아들에게 발레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른 신체 성장과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 2026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9일 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26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열고 2026년 농촌진흥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이수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장을 위원장으로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농업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해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젊은 후계영농세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포함해 총 15개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농가를 심의해 대상 농가를 선정했다.

또한 참석위원들은 실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사업별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장수군은 선정된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과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연구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4H연합회·미래클영농조합법인, 임실군에 장학금 기부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명절을 앞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 10일, 임실군 4-H연합회(회장 신동천)에서 200만원, 미래클영농조합법인(대표 최용하)이 200만원씩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총 400만원의 애향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은 두 단체가 뜻을 모아 동시에 진행돼,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젊은 농업인 단체들의 굳건한 연대와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

심민 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을 위한 따뜻한 동행에 나서주시는 두 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진안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모임 및 실내활동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장관감염증,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음식의 대량 조리 및 장시간 보관, 공동섭취 증가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지 않기 △ 물은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으로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실내 주기적 환기 △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모임 참석 자제 및 의료기관 방문 등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10일 장수전통시장 시작 13일 장계전통시장 순회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장수군은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0일 장수전통시장을 시작으로 13일 장계전통시장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군 공무원과 관내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제수용품과 지역 농특산물 등을 대대적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설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인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장수군은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은 물가 지도·점점반을 편성해 요금 과다 인상이나 단합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과 환경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장수군은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명절과 성수기마다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원

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찾아 질 좋고 저렴한 지역 농특산물과 차례용품을 구매하시고 소중한 가족, 친지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전통시장에서 설날 대목 장보기

12일 설천 삼도봉 시장 무주사랑상품권 캠페인 진행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12일까지 각 읍면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주민들에게는 실속 있는 장보기 기회가 되고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일 안성 덕유산시장에서 시작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11일 무주 반딧불시장에서 열렸으며 12일에는 설천 삼도봉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 상인회 관계자 등도 함께 해 제수용품과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등 장보기에 동참했다. 또한 '무주사랑 상품권'과 '소비 쿠폰' 이용 캠페인도 벌



여 눈길을 끌었다. 상인들은 "설을 목전에 두고도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모처럼만에 여러 사람이 북적거리는 사는 것 같다"라며 "상인의 한 사람으로

서 좋은 물건, 친절함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이 앞다퉈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전작물 정부 보급종 신청

선풍콩·대찬콩·아리리팍 품종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소영)는 내달 17일까지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전작물(콩, 팥) 정부 보급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6년 임실군에 공급되는 품목은 콩 2품종(선풍콩, 대찬콩)과 팥 1품종(아리리팍)으로 총 3가지 품종이다. 콩은 소독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팥은 미소독 종자만 공급되므로 종자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공급 단위는 콩, 팥 두 품목 모두 5kg(1포대) 단위로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5kg당 일반콩 27,790원, 팥 55,720원이며, 소독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은 동일하다.

'신청 물량 조정' 기간은 시·도 단위 신청이 끝나는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도내 전량이 있는 품종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전국단위 추가신청'기간으로 전국에 전량이 있는 품종에 한하여 지역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내 공급이 되지 않는 타지역 공급 품종은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8일 사이 지역 농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보급종 수령 시 신청자명을 확인 후 종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종자 수송 즉시 이후 물량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신청 이후 남은 물량에 한하여 4월 13일부터 잔량 소진시까지 개별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보급종 대표번호(1533-8482)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종자대금 입금이 확인된 후 신청한 농업인의 주소지로 택배 발송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택배 발송 시 별도의 택배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 체계로 생산된 정부 보급종으로 관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전작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보급종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당소의 상황에 따라 신청 물량이 소진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농업인 생활 안정 도모

군비 직불금 5,516 농가에 8억 4천8백여만원 지급

무주군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5,516 농가, 3,142ha 규모에 8억 4천 8백여만 원의 '군비 직불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군비 직불금의 지원 단가는 1ha당 27만 원으로, 최대 135만 원이 지원됐다.

군비 직불금 지원 대상은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무주군에 거주하며 지역 내 농지(0.1-5.0ha)를 경작하는 농업인들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해 편의를 높였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와 원자재가 격상돼, 농산물 가격 하락,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의 생활 안정과 지역 농업 발전, 지역사회 소비 진작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농촌의 환경·생태·먹거리 안전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금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9월 30일까지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올해의 책' 추천 접수 시작

3월경 군민투표로 최종 확정

무주군이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도서 추천 접수에 나섰다. 이 사업은 군민과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독서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어린이·청소년·일반 분야별로 각 1권씩을 선정한다.

'올해의 책' 추천 접수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분야별로 최대 3권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접수는 형설지공도서관 누리집

(www.library.muju.org)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무주군은 도서관 내부 검토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야별 예비 도서(각 5권)를 선정한 뒤, 오는 3월 군민 투표를 통해 최종 '올해의 도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 올해의 책' 추천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형설지공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형설지공도서관으로 직접 문의(063-320-5621)하면 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민 삶의 질 높인다

기부로 완성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진안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출산·어르신·아동·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8,858명의 기부자로부터 약 1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출산 가정을 응원하기 위한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57가정을 지원했다. 실제 양육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된 수혜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센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사업' 추진이다. 이 사

업은 관내 경로당 및 마을 회관 등으로 운영되는 관내 주민 센터 16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에는 20개 권역 53개소에 추진했으며, 2027년까지 관내 주민 센터 전 곳에 설치를 목표로 사업 추진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진안 아이 성장앨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100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고 함께 지역 사진관 활성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정기부 방식으로 '학전지구 복합문화광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5,140㎡ 규모의 광장과 주차 하부에 주차장 180면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 기반 확충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장수군보건요원은 지난 6일 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계남면 사과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쯤쯤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주요 증상, 예방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야외 활동 시 긴 작업복과 모자 착용 △옷과 신발에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야외활동 후 의류 분리 세탁 △즉시 샤워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행동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관련 영상 시청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여기에 결핵 검진 안내와 함께 기침 예절,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을 병행했으며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승무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결연가정 위문 방문

"흠뻑한 복지 실현해 나가겠다"

진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1월부터 12월까지 이틀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결연가정을 대상으로 위문 방문을 실시하며,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 위문 활동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명절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진안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용자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살피는 한편,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

군은 매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공무원 1대1 결연가정 방문도 병행 추진했다.

군수를 포함한 650여 명의 전 공직자가 결연을 맺은 가정을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정서적 지지와 생활 애로사항을 살폈다.

특히 공직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함으로써, 미처 살피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의미까지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이 복지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군민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촘촘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안=전길빈 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에 설 명절 음식 나눔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11일 센터 강당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명절 음식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동세대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명절 음식 꾸러미는 소고기, 오색 떡국떡, 한우 사골곰탕, 표고버섯, 김치류 등 설 명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군장대학교 웰니스봉사단과 파사도 봉사대 소속 대학생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해 명절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담고 포장하며 이웃을 향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진안 동향면 외유마을 김석기 씨, 소외된 이웃에 삼계탕 전달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 11일 진안군 동향면에 따르면 외유마을 주민 김석기 씨(前외유마을 이장)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삼계탕 50개를 면에 전달했다. 2011년에 동향에 터를 잡은 김석기 씨는 1년에 2번 매 명절마다 동향면에 10년째 삼계탕을 후원하며 주변 주민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동향면은 전달된 삼계탕을 어르신 및 소외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전달해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외유마을 김석기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뜻을 전했다. 이에 이강희 동향면장은 “주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후원 덕분에 어르신들이 힘을 얻게 됐고,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읍 청년회, 마을 경로당 60곳에 라면 기탁

어르신들 간식·식사 지원

무주군 무주읍 청년회(회장 박희환)는 지난 11일 무주읍 지역 내 마을 경로당 60곳에 라면 130박스(2백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라면 기부는 어르신들의 간식 및 식사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박희환 무주읍 청년회장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간간히 새참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 라면을 준비했다”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청년들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 안부도 살필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무주읍 청년회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읍 청년회는 친목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에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로, 50여 명의 회원들이 각종 지역행사 봉사는 물론, 취약계층 지원,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고창 상하면지사협, 전염성 피부질환 가구에 목욕 봉사

고창군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광월, 민간위원장 전봉식)가 지난 9일 피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주거·위생 환경 개선 봉사를 진행했다. 상하면 지사협 위원과 마을 주민, 박광월 상하면장 등 30명이 참여해 목욕봉사와 세탁물 수거·세탁·건조, 주택 내·외부를 청소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90대 노부부와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수개월 전 감염성 피부질환에 감염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상하면은 방호복 30벌을 준비하고, 감염병 예방수칙과 방호복 착·탈의 방법을 안내하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봉사를 안전하게 진행했다. 전봉식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돌봄이 부족한 복지사각지대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취약계층 200가구에 반찬 나눔

지역 공동체 따뜻한 연대 실천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채미화)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완주의 소중한 여성들 틈새지원사업(완소녀)’ 사업 일환으로 반찬 나눔을 추진했다. 11일 여성단체 회장단 및 실무진 20명은 행복조리관에 모여 한부모 가족,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명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

에 나서며 협력과 봉사의 마음으로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를 실천했다. 채미화 회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의 소중한 여성들 틈새지원사업(완소녀)’은 2월부터 9월까지 명절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활동을 통해 총 40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태인컨트리클럽, 정읍시에 장학금 5000만원 기탁

태인컨트리클럽(대표이사 김재평)은 11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5000만원을 기탁했다. 태인면 증산리에 위치한 태인컨트리클럽은 지난 1997년 개장 이후 호남권을 대표하는 명문 골프 클럽으로 성장해 왔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재평 대표이사는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키

워가는 과정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장학금이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톡 톡 기탁은 정읍 교육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며 “기탁자의 소중한 뜻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장학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임실 새싹어린이집 원아들,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임실군 관촌면에 소재한 새싹어린이집 원생 20여 명이 지난 9일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써달라며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 김복자 새싹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모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기쁨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진행했으며, 이번 모금으로 아이들의 작은 실천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경험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지현 관촌면장은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남원 노암동 주민, 명절마다 정성 담은 수세미 기부

남원시 노암동의 한 주민이 손뜨개질로 만든 수세미를 꾸준히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 노암동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은 최근 손수 뜬 수세미 50개를 노암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매년 50여 개의 수세미를 손수 만들어 보내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전달받은 수세미는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다”라며 “이 수세미를 사용하는 분들이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마음담백, 지구를 아껴요 과대 포장 NO!

진정한 가치는 포장이가 아닌 정성입니다



불필요한 포장은 쓰레기만 남깁니다



간소한 포장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설 연휴, 아이와 함께 정음으로! 놀이와 예술이 만난 가족 여행지



정음 내장산 문화광장·기적의 놀이터부터 엑티비티 천국 천사히어로즈까지 놀거리 가득 빛으로 깨어난 역사 '1894 달하루' 가요 역사 담은 '한국가요촌 달하' 눈길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간의 긴 연휴, 가족 친지들과
의 만남 뒤에 찾아오는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
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볼거리와
신나는 즐길 거리, 교육적 가치까지 챙길 수
있는 여행지가 절실하다. 그 해답이 바로 정
음에 있다. 추운 겨울에도 땀흘리며 놀 수 있
는 실내 놀이터부터 최첨단 미디어아트로 되
살아난 역사 체험관, 한국 가요의 뿌리를 찾
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명소들이 가득하다.

■ 전국 최고 '기적의 놀이터'와 엑티비티
천국 '천사히어로즈'
정음 여행의 첫 번째 코스는 단연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이다. 이곳은 어린이들의 창의
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
는 시설이 들어서 있다.

먼저 지난해 9월 새롭게 문을 연 '정음시 기
적의 놀이터'는 개장 3개월 만에 지역을 넘어
인근 도시인 전주, 광주, 익산, 군산 등지의 외
지인들까지 끌어모으는 명소로 부상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놀면서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유아놀이
터 ▲거미줄놀이터 ▲단풍나무놀이터 ▲모
래놀이터 ▲곰목길놀이터 ▲숲놀이터 ▲창
의놀이공간 등 7개의 테마 공간이 조성됐다.
특히 놀이창고에는 모래놀이 도구, 고리걸기,
굴렁쇠 등 다양한 전통·창의 놀이도구가 비
치돼 아이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개장 이후 시가 방문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놀이터가 위치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의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추석 연
휴 기간 분석 결과 10대 이하의 주 이용층과
30~40대 주 양육층의 방문이 압도적으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적의 놀이터 바로 옆에는 날씨와 상관없
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전북 최대 규모
의 실내 복합 놀이시설 '천사히어로즈'가 있
다. 지상 2층, 2185.8㎡의 면적을 갖춘 천사히
어로즈의 내부는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
는 17종 39개의 실내 놀이기구로 가득 차 있
다.

고공 행진을 즐길 수 있는 '에어리얼 로프',
등반 체험이 가능한 '아트클라이밍'과 '암벽
타기', 허공을 가르는 '립 오브 페이스'와 '스
터어웨이 투 해븐' 등은 아이들의 도전 의식
을 고취한다. 여기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스포츠와 4D 레이싱 게임까지
갖춰 지루할 틈 없는 시간을 선물한다.

■ 빛으로 깨어난 역사 '1894 달하루'

신나게 몸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눈과 귀가
즐거워 환상적인 빛의 세계로 떠날 차례다.
지난 2월 6일, 정음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미
디어아트로 재해석한 복합 전시공간 '정음 국
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시관 1층에 들어서면 정음의 역사가 빛
의 예술로 펼쳐진다. 동학농민혁명의 뜨거운
함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의 선비 정
신, 조선왕조실록 이안의 긴박했던 순간, 현
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음사'의 애

달픈 사랑 이야기가 8개의 주제로 나뉘어 미
디어아트로 구현된다.

2층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콘
텐츠 공간과 어린이 참여 공간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대표 캐릭터 '달뽕이'와 '솜뽕이' 굿즈
를 만날 수 있는 '달하루 프렌즈샵'은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아기사랑방과 반려동물사
랑방 등 편의시설까지 완벽해 남녀노소 누구
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지향한다.

또한 현재 기획전시로 국가유산청·국가유
산진흥원이 '디스트릭트'와 협업해 제작한
'이음을 위한 공유' 전시가 열리고 있어 수준
높은 디지털 예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 달빛 아래 흐르는 사랑과 노래 '한국가 요촌 달하'

정음시 신정동에 위치한 한국가요촌 달하
는 정음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요인 '정
음사'의 고장답게 우리 소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제1전시실은 '정음사에 담긴 사랑을 보다'
를 주제로 꾸며졌다. 정음사 설화를 바탕으
로 한 스토리텔링 영상이 3면 영상 애니메이
션으로 연출돼 관람객을 맞이한다. 백제가요

정음사가 궁중음악 '수제전'으로 이어지는 음
악적 변천사와 그 가치를 배우고 시대별·나
라별 사랑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감정인 '사랑'을 되새겨볼 수 있다.

제2전시실 '음악에 투영된 시대를 느끼다'
에서는 근현대 대중가요 100년의 흐름을 엿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대중가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부모 세대
는 향수에 젖고,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특히 1907년부터 1980년대까지 각 시대의
특징을 재현한 세트 공간과 대중음악 변천을
담은 미니 다큐 영상은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레트로한 감성을 자극하는 포토존 역할까지
톡톡히 한다.

이학수 시장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
지들과 함께 정음의 명소를 찾아 뭇다 한 이
야기를 나누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
란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정음에서 모두가 웃음꽃 피우
는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설날 당일인 17일(화)에는 천사히어
로즈, 한국가요촌 달하, 1894 달하루 미디어
아트관이 모두 휴관하므로 방문 시 각별한 유
의가 필요하다.

/정음=김정인 기자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안군의회는
군민이 재미있게 잘사는 부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